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역자님들께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 3:5)

평안(平安)! 이번 편지는 7,8월 소식을 함께 전합니다. 습하고 무더운 찜통더위로 하늘로 올라간 수증기가 오후에는 집중호우로 짧게 퍼붓는 것이 이곳 여름날씨의 특징입니다.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였으나 평소 물이 부족하여 태풍이 와야 가뭄이 해결되는 곳이 바로 이곳 대만입니다. 참 아이러니이지요!

여호수아 3:5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생활 끝에 드디어 내일이면 가나안으로 진격하는 날에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앞에 놓인 요단강은 분명 두렵고 큰 장애물임에 틀림없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행하실 기이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는가 묵상해 봅니다. 태풍이 가져다주는 단비에 방점을 두면 감사가 있듯이 요단강 너머에 내일 행하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기대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 때에 소망과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그러한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변방에 ‘십자가의 도’ 집회를 열다

7/8-9일에 중부지역(타이중)의 한 가정교회에서 십자가의 도를 집중적으로 전하는 사경회를 가졌습니다. 이 집회가 특별한 이유는 대만에서는 설교시간에만 전할 수 있었던 십자가 복음을 처음으로 이틀간 네 번에 걸쳐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3-5일간 인도했던 집회를 대만에서도 할 수 있기를 기도했는데 드디어 첫 집회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말씀이 그들 마음 밭에 심겨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집회후에는 모든 교우가 한 명씩 나와서 자신의 기도제목을 말하며 안수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모두가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는 가운데 교회에서 위안과 사랑을 맛보고 비록 적은 수이지만 썬데이 크리스찬은 없는 사랑스런 교회였습니다. 도시의 대형교회에서는 느낄 수 없는 순박함과 친밀한 성도의 교제를 선물로 받고 저희 부부는 앞으로 선교사가 잘 가지 않는 변방지역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순회 집회를 열고자 하는 비전에 한발자국 더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들고 기뻐하는 교우



십자가의 도 집회를 마치고

삼성교회 여름 행사



7/6~9일까지 삼성교회에서 어린이 전도목적의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대만 청년들로 조직된 단기선교팀의 도움을 받아 재미있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참석 아동과 부모들도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석한 아동들은 이런 시간을 계속 갖기를 원하지만 교인들은 농사 및 민박집 운영에 종사하는 분이 많아 주일 외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가운데 외부의 도움을 받아 1년에 한번씩 여름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여름 캠프 및 교회 자체 후속 프로그램 어린이 펜글씨 교실, 이들의 작품

그런데 최근 1년간 두명의 헌신자가 나와 후속 프로그램(펜글씨 반과 복음카드 제작)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 펜글씨반에서 배운 학생 중 펜글씨 대회에서 수상자도 배출되어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느리지만 점점 성장하고 있는 삼성교회를 위해 더욱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8/7~15)

18명의 대만 성도들과 함께 동말레이시아(보르네오섬 북부)지역의 7곳의 화교교회 목회자들과 협력하여 단기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 지역은 19세기부터 이주한 화교들에 의해 화교 사회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서말레이시아에 비해 기독교선교가 활발하여 일찍이 화교들이 세운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객가인을 포함한 말레이 화교들이 세운 교회를 도와 오전에 노방 및 방문 전도, 오후에는 의료활동, 저녁에는 전도집회를 하였습니다. 매일 다른 지역의 교회를 방문하여 진행하는 빡빡한 일정이었는데 시작한 다음날부터 대원 중에 열병 환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영성훈련 인도

불신자 가정 심방, 의료진료를 통한 복음 전도

인솔자이신 홍산교회의 샤오 목사님이 40도의 고열에 시달리고 순서를 맡은 자매 중 몸져 누워 참석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육체적 영적인 공격속에서 저는 아침 경건회를 인도하며 대원들이 영적으로 무장하여 서로 돌봄으로 하나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첫날 저녁 전도집회때에 ‘십자가의 도와 중국 선교’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 가지고 간 책 ‘광야에 세우는 십자가’를 20여명 목회자들과 그곳 지도자들에게 선물했습니다. 그곳 화교 교회들에게 선교적 교회와 중국 대륙 선교에 관심과 사랑에 도전을 주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샤오 목사님은 다행히 열이 떨어져 다음날 저녁 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있음에도 대만 단기선교팀을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지 못하는 과감한 전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문전도시 만난 현지인들은 한국에서 온 제게 호감을 표하여 대원들은 저와 함께 전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의료활동도 큰 역할을 했는데 함께 간 의사 자매가 매일 50명의 환자들을 미소와 친절함으로 진료하였고 대원들은 의료보조를 하면서 심리상담을 겸한 복음제시를 하였습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모두가 합심하여 해내면서 우리 모두는 몸은 극도로 피곤했지만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찼습니다.



7개 지역교회에서 전도집회, 무언극과 원주민 찬양사역을 마치고

자칫하면 사역중반기에 대열이 흩어질 수 있는 위기상황에서 아침 경건회는 우리를 하나되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대원들 모두가 경험하며 고백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픈 대원을 위해 기도하고 돌보면서 끝까지 모든 일정을 다 소화하고 대원들의 건강도 다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기회에 동말레이시아에 대해 새롭게 아는 기회가 되었고 중국인들이 오랜 세월에게 걸쳐 집단 이주하면서 어떻게 현지인과 갈등을 거치며 정착하게 되었는지를 좀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화교를 통한 동남아 선교의 장점과 유의할 점을 더욱 생각하면서 앞으로 선교의 방향을 모색해야 함도 깨달았습니다.

주베이, 흥산 교회 연합 야외예배 (8/20)



흥산교회 샤오목사님 부부와 함께 말레이시아에서 돌아온 다음 주일에 주베이교회와 흥산교회가 연합하여 야외예배를 드렸습니다. 흥산교회에서 세명이 세례를 받는데 두 교회가 연합하여 세례와 성찬 예배를 드림으로써 풍성한 예배와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물가에 모인 성도들께 여호수아 3:5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인도”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에 요단강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라는 말씀을 전하는 여호수아의 심정으로 제 마음이 뜨거워져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베이 교회 마 전도사님은 이번 기회에 전도대상자 세명을 초청하였는데 다음 예배 때에도 오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날씨와 오가는 교통편과 참석자들의 마음 모두를 완벽하게 예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흥산/ 주베이 교회 연합 야외 예배 및 세례식, 성찬식, 성도들과 식사 교제

기도제목

1. 흥산교회 샤오 목사부부가 이끄는 말레이시아 선교팀이 사역을 잘 마침을 감사하며 두번째 팀인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이 은혜 가운데 사역을 잘 마칠 수 있게 하소서. (9/11~21)
2. 삼성교회가 여름 어린이 캠프와 펜글씨반을 통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고 교회의 부흥과 연결되게 하소서.
3. 복음 카페의 씬디자매가 이란市 문화제(9/29-30)에 출품하는 유대인 장막절 체험활동을 통하여 그 지역 주민들에게 기독교 문화가 소개되고 복음전파의 다리가 되게 하소서

2023. 8. 23. 대만에서, 황창연 오순영 선교사 올림